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농업용수 수질환경 보 전회 개최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7.01 10:18

지자체·환경단체·학계·농업인 등 참석...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성산제 현장견학...인공습지·침강지 등 수질개선시설 운영 현황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영암지사는 지난 29일 영암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환경단체·학계·언론인·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환경 보전회'를 개최했다. 공사 단독의 수면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질관리 방안과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중점관리 저수지의 수질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회의 이후에는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성산제를 방문해 수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인공습지·침강지·인(P)불용화시설·수초저류지 등 수질개선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농업용수 수질보전은 한국농어촌공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사회, 농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